

■ 예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성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보통 '예수 성심상'에서는 예수님의 심장에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성심이란 신체기관인 '심장'만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사고, 의지를 맡은 중추기관으로서 그리스도 인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또 예수 성심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을 통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들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구세주 하느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목상하는 신자들은 기도와 희생, 보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해제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부터 팬데믹으로 시작된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을 해제하며 앞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불필요한 일과 쇼핑을 삼가고 가족/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와 여가/휴식을 통해 시간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교구 팬데믹 본당 규정 해제

-교구내 본당에 적용된 팬데믹 교구 규정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단 본당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별도의 공지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좌석 띄워 앉기는 유지합니다. 그외 교구에서 시행했던 제한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내부 소독은 하지 않고 있으니 성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준비된 손소독제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낙태 반대

-하이드 수정헌법은 45년 동안 미국인들이 낙태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하이드 수정헌법은 지금까지 2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힘있는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반세기 동안 지지해 온 이 법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인류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고 조직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NoTaxpayerAbortion.com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낙태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NoTaxpayerAbortion.com

■ ACTS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절약한 몫은 Archbishop's Call To Share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구장 주교님께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ACTS로 하실 경우 Parish 선택란에는 Korean Catholic Communit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일헌금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복사 재개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복사를 재개합니다. 복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들은 전례부에 신청해 주십시오.

■ Peter's Pence 2차 헌금 안내

-6월 27일은 교황 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해 "교황님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를 바쳐주십시오.

■ 나우만 대주교님 본당 사목방문: 10월 3일 주일

-대주교님과 미사 후 단체사진 촬영 및 점심식이 있습니다. -나우만 대주교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본당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주일미사 전에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주일미사 전 성당 입구에서 1주일 간 바친 묵주기도 집계하여 주보에 매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미사 30분 전에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는 전례부에서 별도로 집계합니다. -6월 20일 현재 누적: 201단

■ 기타

-성당안에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깜빡 잊고 오신 분은 입구에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무료)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의사의 권유가 있으면 집에 머무르시며 건강 회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당 재정에 본당신부는 관여하지 않으니 재정은 평협회장께 문의 바랍니다. -성당에 들어오시면 앞자리부터(중앙 통로쪽부터) 채워 앉아주십시오. 유아가 있는 가정도 앞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제대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대 가까이 오시어 미사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홀리트리니티 성당에서(스톤채플) 아침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전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캔자스 한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며 함께한 강승호 아오스딩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귀국하는 '강승호 아오스딩, 김희진 에메렌시아, 강미정 클라우디아, 강민지 플로라'가족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 가득 주시길 기도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파 건
금 주	401	399
차 주	44	3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동술 요한세례자	윤지선 리디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녜스

주보 담당: 박민 바실리오 richard.min.park@gmail.com